

완성차업계, 수출·내수 '희비'

친환경차·신형시장 드라이브

경기침체 직격... 내수판매 부진
수출물량 증가로 실적 방어 성공
美·인도 등 글로벌 현지화 집중



국내 완성차 로고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수출 물량 증가로 실적은 방어한 모습이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내수 경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판매 목표(744만대)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KGM)는 내수 시장에서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신차 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7.5% 감소한 70만500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기아도 4.2% 줄어든 54만대 판매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수출 상승에 힘입어 전체 판매량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308만9457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줄어든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3년보다 1% 많은 254만3361대의 해외 판매량으로 극복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로 321만6000대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기아는 위기 돌파를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

차와 기아는 조지아 공장 가동을 통한 북미 친환경차 시장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현지화 전략으로 신형시장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목적기반차(PBV)인 'PV5'로 자동차 업계 혁신을 주도하면서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소형 SUV '시로스'와 픽업트럭 타스만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내 중점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와 수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한국지엠과 KGM은 내수 시장에서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감소한 2만4824대를, KGM은 25.7% 줄어든 4만7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1982년(2만2184대) 이후 최저다.

다만 한국지엠과 KGM의 수출 물량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국지엠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7

만4735대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만2378대를 기록했다. KGM은 2025년에도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O100' 등 신모델 출시를 통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판매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랜 기간 판매 부진을 겪었던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출시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로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내수 3만9816대, 수출 6만7123대로 총 10만6939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연간 내수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80.6% 늘었다.

신차 효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는 신차 출시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올해 내수 시장은 그랑 콜레오스 판매에 주력하면서 아르카나로 수출물량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그랑 콜레오스의 해외 수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르노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 준중형 전기 SUV인 르노 세니 E-테크(Tech)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올해는 침체된 내수 시장 대응으로 판매 물량을 늘려가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신형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SK에너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부두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선박에 선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국내 최초 SAF 유럽 수출

(지속가능항공유)

연산 10만 수준 대량 생산체제 주요 연료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나프 등 저탄소 제품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톤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므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수출했다.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동시처리방식) 생산방식으로 폐식용유 및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럽 각국은 올해 1월부터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배합해 써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 현재 SAF 사용이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유일하다.

SAF 대량 생산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춘 SK에너지는 유럽연합(EU)이 SAF 사용 의무화에 돌입하자마자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앞서 SK에너지는 지난 2024년 9월 코프로세싱 방식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SAF 상업생산에 착수한 바 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과

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나프 등 저탄소 제품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톤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므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환경과학기술원 연구개발(R&D) 및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울산CLX) 엔지니어링 역량을 토대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상업생산 라인을 가동한 것이 수출에 주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폐자원 기반 원료기업에 투자했고, SK에너지가 이번에 SAF 생산 및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료 수급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SK에너지는 올 상반기 국내 공급을 비롯해 글로벌 SAF 시장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LS, '에식스솔루션즈' 2억달러 투자 유치

프리 IPO 성공... 연내 상장 추진
미래에셋-KCGI컨소, 20% 지분 취득

LS그룹 지주사인(주)LS의 미국 자회사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LS는 미국 자회사인 에식스(ESSEX) 솔루션즈가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미래에셋-KCGI 컨소시엄이 제3차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자금액은 2억 달러(약 2900억원)다.

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 컨소

시엄은 약 2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를 환산하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시가총액은 약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에 달한다.

LS가 직접 주관한 에식스솔루션즈의 프리 IPO에는 베인캐피탈, 골드만삭스, IMM 등 주요 투자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올해 초까지 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연내 본격적인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코스피 상장을 계획했으나 미국 현지 투자은행(IB)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나스닥 상장도 검토 중이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세계 1위의 권선 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전기차·하이브

리드차용 특수 권선'과 '대용량 변압기 용 특수 권선' 등이다. 권선은 변압기나 모터 등 전자장치에 감는 피복 구리선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 권선 제품은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향후 5년 내 북미 시장 전기자동차 권선 점유율을 70%, 유럽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LS 관계자는 "에식스솔루션즈가 대규모 프리 IPO에 성공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미래 사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통해 권선 업계 선두주자 위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포차코 키즈폰' 사전 판매

갤럭시 A16, 포차코 케이스 등 제공

KT는 산리오 인기 캐릭터 '포차코' 테마를 적용한 스마트폰 '포차코 키즈폰'을 KT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사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10일부터 전국 KT 대리점에서 구매

할 수 있다.

포차코키즈폰은 초등학교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IP54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했다. '라이트그린' 1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구매 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A16 LTE 단말기와 그림북, 포차코 케이스 등이 제공

된다. 가격은 34만9800원이다.

키즈폰을 사용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고객은 음성과 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니어 전용 요금제 2종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10만원(스페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자녀가 주니어 전용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우리아이할인'을 통해 월 88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에코프로 "1분기 내 中 GEM 통합법인 설립"

R&D 아웃소싱 강화 등 중점과제 선정

에코프로가 캐즘(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를 의미)을 돌파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선언하면서 2025년의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지난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에코프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이동채 창업주는 "대의 여건은 심상치 않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임직원들이 일심단결하고 환골탈태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모두 공정의 에너지로 새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